

# 충무공 이순신에 대하여



- 一. 충무공 이순신
- 二. 거북선



**충무공 이순신**은 1545년 3월 8일(양력 4월 28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32세가 되던 1576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무관(武官)이 되었다.

그는 36세인 1580년에 전라도 발포(鉢浦)의 수군지휘관인 만호(萬戶)가 되었고, 1591년에는 조선 남해의 4개 함대 가운데 한 함대의 사령관 즉,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가 되었다. 이때 그는 장차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충실하게 전비태세를 갖추었으며, 한편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당대무비(當代無比)의 전선(戰船)인 거북선을 제작, 건조하였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였다. 초기 접전에서는 조선의 2개 함대가 일본 함대에 의해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순신 함대가 출동하면서부터 조선 함대는 승승장구하던 일본 함대를 격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592년 한 해 동안 10여 회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군의 해상을 통한 보급지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

1593년 8월 조선 정부는 이순신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연합함대사령관 즉,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하였다. 이후 4년 동안 그는 열세한 함대를 이끌고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함대를 잘 방어했으며, 최후의 결전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순신은 조선 정부의 권력 암투의 희생물이 되어 삼도수군통제사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편 이순신이 없는 조선 함대는 1597년 7월 16일의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일본 함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연합함대는 궤멸되었다. 위기에 처한 조선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였다. 그는 12척의 패잔전선(敗殘戰船)으로 노도와 같이 진격해 오는 일본 함대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1597년 9월 16일의 명량해전(鳴梁海戰)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13척의 조선 함대는 133척으로 구성된 일본의 대 함대를 격파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1년 동안 이순신은 함대의 세력증강에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여 최후의 결전에 대비하였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은 퇴각하는 일본 함대와 결전을 벌여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대 승리를 거두었으나, 자신도 또한 전사(戰死)하였다.

그는 7년동안 40여 회의 해전에서 완승(完勝)을 거두어 일본의 조선정복 야욕을 분쇄하였고, 조국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하였다. 조선 정부는 그에게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인들은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다.



| 거북선

**거북선**은 전라좌수사였던 충무공 이순신이 일본의 침입을 예견하고서 임진왜란(1592-1598) 직전인 1592년 4월초에 건조 완료한 당대무비의 전선이다.

거북선은 그 크기가 당시 다른 유형의 전선과 거의 같았지만,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거북선의 선체는 2치에서 1자 사이의 두꺼운 목재를 사용하여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두꺼운 판자로 덮은 개판 위에 철갑을 덮은 후 쇠못을 꽃아 적의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거북선은 16개의 노와 2개의 돛을 겸용하여 항해했는데, 돛대는 세웠다 누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함포 구멍은 모두 14개였는데, 좌우현에 각각 6개가 있었고, 또한 선수의 용머리 부분과 선미의 거북꼬리 부분에 각각 1개씩 있었다. 거북선은 전체적인 모습이 거북과 비슷했기 때문에 거북선으로 불리었다.

거북선은 전투를 할 때 거적으로 쇠못을 덮은 채 돌진했으며, 이를 모르고 거북선에 뛰어드는 적병은 쇠못에 찔려 죽거나 부상당했다.

또한 거북선을 에워싸고 엄습하려 하는 적선에게 전후좌우에서 총포를 일시에 발사하여 혼비백산케 하였고, 적진을 종횡무진하면서 적선에 큰 피해를 주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의 지휘아래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 등 여러 해전에서 선봉 돌격선으로 출전하여 많은 일본선을 격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복원된 거북선의 제원>

<b>전 장</b> : 34.2m (113 척)	<b>선체높이</b> : 6.4m (21 척)	<b>선 폭</b> : 10.3m (34 척)
<b>흘 수</b> : 1.4m (4.5 척)	<b>함 포</b> : 14 문	<b>승조원</b> : 130 명